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4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8시). 화, 목요일(오후 2-6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와고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목주기도 바치는 법 The diagram illustrates the structure of the Rosary prayer. It shows a string of beads arranged in a heart-like pattern. Arrows indicate the flow of prayer from top to bottom. Key labels include: - 상무송(목주 한 알마다 1회씩) - 경건송(구원의 기도) - 선비 3번, 주님의 기도 - 영광송(구원의 기도) - 선비 4번, 루가의 기도 - 영광송(복수 한 알마다 1회씩) - 영광송(구원의 기도) - 선비 2번, 주님의 기도 - 영광송(복수 한 알마다 1회씩) - 영광송(목주 한 알마다 1회씩) - 선비 1번, 루가의 기도 - 영광송 1회 - 영광송 1회 - 영광송 1회 - 루가의 기도 1회 - 목주기도와 첫 시작입니다. 심호결을 해주세요. 사두신전만 배정됩니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5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이 요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12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이 요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19	유 요한	김 헬레나	이 요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26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28	\$ 342.00	-	\$300.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 : 주일 미사 시작 전 (오전 7 시 30 분 부터)

10 월 목주성월을 맞아, 주일미사 시작 30 분 전부터 목주의 기도를 매주 5 단씩 봉헌할 예정입니다.

10/5: 환희의 신비, 10/12: 고통의 신비, 10/19: 빛의 신비, 10/26: 영광의 신비.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서통독: 매 주 '주일 미사 후 10 분씩'

6 월 22 일부터 주일미사후 10 분씩 '사도행전' 을 다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서: 1-8 장, 9-16 장, 17-28 장 세부분으로 나눠서 구역장님께 제출. 1-8 장까지 필독을 끝내신 분들은 구역장들에게 제출 후 싸인을 받으시고, 아직 필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단계인 9-16 장을 새로이 같이 필독을 시작해 주십시오.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업데이트'

본당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정리 작업하고자 하오니, 서식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 자매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증빙서류: 이전 성당에서 교적을 제출해 오시거나,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의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

공 동 체 소 식

베이커스필드 코리안 페스티벌: 10/5(일)

베이커스필드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10 월 5 일(일)에 있습니다.

일정: 10/5 (일) 오후 12:30 - 오후 6:00

장소: Jastro Park (Truxtun Ave. and Elm St. Bakersfield, CA 93301)

Fresno 교구 Diocesan Congress & Youth Day: 10/11-10/12

장소: Visalia Convention Center (303 E Acequia Ave, Visalia, 93291).

Congress: 10 월 11 일(토) 오전 8 시- 오후 5:15 분.

<한국어 워크샵 프로그램 10 월 11 일(토)>

12:45 pm-2pm. "New Evangelization for Korean American Catholics (한국어)". 강사: 스티브 김 신부님.

2:30 pm - 3:45 pm. "나눔의 영성". 강사: 캐씨 조.

상세정보: www.diocesessoffresno.org/congress

등록비: \$40 (9 월 3 일-10 월 1 일). 문의: 공동체 임원.

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10/14(화) 저녁 8 시

10 월 둘째 화요일인, 10 월 14 일(화)에 평신오협의회 임원회의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10/19(주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가을 하마йка 축제: 11/9 (주일): 오전 8 시-오후 5 시

산클레멘테 공동체 가을 축제가 11 월 9 일 (주일)에 열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친교를 위한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소식>

*이 그레이스 자매님의 둘째 따님 결혼식: 10 월 11 일(토)

이 그레이스 자매님의 둘째 따님(Kathy Suh) 의 결혼식이 10 월 11 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10 월 11 일(토) 오후 3 시

장소: American Martyrs Church

(624 15th Street, Manhattan Beach, CA 90266)

말씀의 이삭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배장수 베네딕토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저와 저의 둘째 아들은 세례명이 같습니다. '베네딕토'입니다. 저희는 사전 논의 없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세례명으로 각각 영세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그저 뜻밖의 우연인지, '군인 주일' 에는 신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이끄셨고,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짐짓 헤아리곤 합니다.

저는 7월생, 아들은 1월생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신병교육을 저는 한겨울에, 아들은 한여름에 논산훈련소에서 받았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겠지만 1970년대에 후반기 교육까지 함께 받은 저의 훈련소 생활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바람이 하루라도 선착순이나 기합, 구타에서 벗어나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음 편히 늦잠을 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야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로 돌아가던 길이었 습니다. 길 건너 마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떠올랐고, 총을 들고 행군하는 저희의 피곤한 물결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두 손을 모은 기도와 총을 든 행군으로 나누는 판이한 삶이란...

순간 저도 모르게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자는 마음이 불끈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뿐이었습니다.아들은 논산훈련소 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 훈련소를 나온 지 장장 30여 년이 지난 뒤에 왕십리 성당에서영세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동기과 과정 등 많은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은 영광스러운 지체입니다.

이 오묘함을 느낄 때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인, 복자들의 숭고하고 위대한 삶을 접할 때, 목주나 목주반지를 한 군인들과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일상생활 중 목표한 그 무엇을 이뤘을 때와 이루지 못했을 때, 세속의 욕심과 믿음의 실천사이에서 갈등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세웠다."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 하고, 우리 모두를 뽑아 세운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7-11)

<서울주보에서>